

데스크 시각

지방자치, 그늘진 곳 살피는 따뜻한 행정



채희종 사회2부장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난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싹을 틔웠다. 이어 중단과 부활을 반복하는 흐름을 거친 뒤, 1995년 민선 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진정한 지방 자치체가 정립됐다. 올해로 20돌을 맞은 지방자치는 '지방화' '지방시대'라는 단어의 탄생에서 보듯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궤를 같이해 신문과 방송 등 언론 매체들도 지방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명칭을 지방부나 전국부, 또는 사회2부(일반 사회 분야를 다루는 사회1부와 구별한 명칭)로 부르고 있다.

광주일보는 사회2부를 두고, 전남 지역 22개 시·군과 전남에 인접한 전북 지역 5개 시·군 등 모두 27개 시·군을 전담·취재하고 있다. 사회2부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최근 1~2년 새 지방자치의 급격한 변화를 느낀다.

대체로 행정은 단체장 위주로 진행되고, 특히 재선을 원하는 이들은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선심성 위주의 정책을 편다. 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제도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과도하거나 쓸데없는 공사를 진행해 혈세를 낭비하기 일쑤였고, 이 과정에 비리가 개입되기도 했다.

치적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몇 년 전만 해도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호화 청사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인구 10만 명 수준의 지자체에 초대형 체육관이 들어서는가 하면 사람도 찾지 않는 곳에 세워진 역사관·문화관도 한둘이 아니다. 대부분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체장의 과시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은 지자체는 물론 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반성과 성숙을 가져다 주었다.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거

의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는 '작지만 따뜻한' 시책들이 점차 늘고 있다.

발열 의자와 어르신 유모차

전주시는 지난 2월 최첨단 탄소 소재를 활용한 '발열 의자'를 시내버스 승강장에 배치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겨울철이면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던 노인들이 승강장의 따뜻한 의자에서 몸을 녹이며,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풍경이 연출됐다. 탄소 의자가 처음 설치된 곳은 새벽 인력시장 일용근로자 쉼터 정류장이었다. 지금은 30곳에 탄소 의자가 설치돼 있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다. 앓을 때마다 주민들의 마음까지 데워 주는 탄소 의자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총 예산은 1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유지·관리비도 사실상 거의 들지 않는다.

남원시는 퇴직 공무원 3명을 무보수 행정 도우미로 위촉해 '민원 상담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퇴직자들이 직접 안내해 주고, 기본 서류까지 작성해 주고 있다. 이들은 자원해서 민원 상담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중 무보수로 활동 중이다.

순천시는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명 '어르신 유모차'를 제공하고 있다. 길을 때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유지해 주고, 간단한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된 보행 보조차를 65세 이상 노인들이 최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정음시는 현금 지급 위주의 출산 장려책에서 벗어나, 영양 상태가 나쁜 저소득 가구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바꿨다.

광주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야광 안전조끼를 나눠 주기로 했다. 노인의 손수레에도 야광 인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갈수록 폐지 줍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데다,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길거리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있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탄소 발열 의자, 어르신 유모차, 노인 야광조끼... 사실상 예산도 몇 톨 들지 않는 어찌 보면 사소한 시책들이다. 하지만 수백억 원짜리 청사나 수억 원을 들인 축제보다 우리의 마음을 훨씬 따뜻하게 해 준다. 소소해 보이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늘진 곳까지 살피는 감동 행정이 바로 지방자치의 미래 아니겠는가.

/chaeh@kwangju.co.kr

기고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 프리존' 조성



김병일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고 있다. 그래서 투자촉진과 지역산업육성에 크게 기여할 사업들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시 그 핵심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남은 나주혁신도시와 도서지역 및 혁신산단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규제 프리존을 조성함으로써 전력SI와 고분자소재 등을 포함한 마이크로그리드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한전 등 이전공공기관과 연구소, 지역대학이 협력하는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전남의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동반성장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한전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실행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산업에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반열에 올라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에너지산업 실증사업과 함께 친환경 기능성 바이오화학 복합소재·부품 개발 등 전력SI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탄소자원화 시범단지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탄소자원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도서지역 해상풍력 투자 활성화 규제개선, 도서 지역 내 국립공원 개발행위 개선 등 총 27건의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남은 향후 10년간 500여개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나주혁신도시 인근에 100만평 규모의 에너지중심 산단을 조성하여 에너지관련 기업 700개 유치와 3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드론(무인기)산업은 항공기술에 지능화, 네트워크, 센서,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을 접목시키는 대표적인 차세대 융합산업이다. 드론은 사람을 대신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오염된 분야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시간의 영상촬영이 가능해 농업·수산 분야와 소규모 항공물류 등 새로운 응용서비스 확대가 기대되는 산업이다.

전남 고흥에는 무인기 시험평가가 가능한 활주로와 기반설비 및 지원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해가가 용이해 무인기를 개발하여 비행시험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만약 고흥군이 단순히 비행시험에만 수행하는 공간이 된다면, 무인기 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인기를 개발하고 구성품을 시험·평가하며 비행시험과 인력양성, 창업지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

기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우주항공 특화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수출용 무인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의 임무장비용 통신링크의 성능시험이 필요하므로, 통신링크의 성능검증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흥만 간척지 일대를 규제 프리존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에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성공적인 국가 종합 비행 성능시험장 구축으로 드론의 원활한 비행성능 시험과 평가·인증 등이 수행된다면, 산·학·연 임주 부지의 마련과 원스톱 실증시스템 구축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는 가속화 될 것이다.

전남의 에너지산업과 드론산업은 전남의 미래를 변화시킬 핵심 산업으로, 규제 프리존 조성을 통해 산업지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 줄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농어가의 생산성 증대와 소득증가가 실현되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활기가 넘쳐나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구현이 그렇게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은펜클럽

알파고와 아재 개그



김장균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동음이의어나 비슷한 소리의 단어를 연결하여 해학적 효과를 얻는 말장난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춘향전'에서 월매는 거지꼴로 등장한 이몽룡을 보며 '서방인지 남방인지 결인 하나 왔다'고, 서방(書房)의 '서(書)'를 '서(西)'로 돌려 '남(南)'에 대응하고 있다. '시집살이 노래'에서도 '~집살이'가 같다는 데서 '시집살이 개집살이'라고 노래한다.

이런 유형의 개그를 왜 아재 개그라고 할까. 사전에 아재는 '아제의 낫춤말'이라고 올라 있지만, 집안 어른을 친근하게 부르는 방언으로서 더 익숙한 말이다. 그럼에도 아재 개그라 할 때는 과거 꾀대라 불리던 꾀 막힌 기성세대의 모습이 떠오른다. 급기야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아재가 젊은이의 영혼을 쪼름는 악령으로 등장한다. 지난 일요일에도 아재 악령은 스태프를 구겨 쓰고, 오버핏 티셔츠를 바지 안에 넣고 바지를 치켜 올리는 패션을 마치 뒤에 넣고 바지를 치켜 올리는 패션을 오버마사지를 기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스스로를 아재로 낮추며 던지는 썰렁한 농담에는 어떻게든 좌절을 웃거리고 애쓰는 구닥다리 아저씨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새우가 주인공인 도라마가 대하드라마라고 말하고 나서, 썰렁한

객석을 향해 "지금은 안 웃기지만 최수종만 보면 뺨 터지게 될 거다."라고 한 마디 더 하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아재 개그는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비꼬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과거 산업 사회를 힘들게 거쳐 왔던 기성세대가 촌스럽고 황당할 설 정도로나마 젊은이들 가까이 다가가려는 애처로운 자화상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단순한 말장난이라며 '노잼(재미없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재한 심리를 공유해보는 것은 어떨까. 금의환향을 기대했던 사위가 거지꼴로 나타난 데 대한 닳투리를 월매의 말에서 읽고, 여인의 노래에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해학적으로 극복하려는 몸부림을 찾듯이 말이다.

미성 시절의 어려움을 경험한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미리 만들어 주고 싶다'는 고민이 있गे다면, 특목고는 그래서 늘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가 안겨준 풍요 속에서 토익·토플 점수, 자격증, 해외 연수 경험, 인턴 활동 등 화려한 스펙으로도 일자리 찾기 힘든 빈곤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제프 자비스(Jeff Jarvis)는 2009년 '구글노믹스'에서 구글이 눈사태라면 이제 산에서 막 내려오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2016년 3월에 우리는 인간 지식이 구글의 인공지능에 의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였다. 조만간 정보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투자 업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식과 연계된 직종은 모두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제 낮고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음이 자명해졌다. 이 상황에서 알파고와 관련한 아재 개그는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대한 풍자이자 기존 학교 시스템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 썰렁한 개그에 웃을 수 있다면, 눈사태로부터 안전한 계곡에서 밝은 태양을 쬐기회 획득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며, 최소한 현재의 교육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려는 노력에 동조한다고 할 것이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社說

더민주 비례대표 진흥당 싸움 불쌍사납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비례대표 후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본인을 2번에 '셀프 공천'한 것에 당내의 반발이 거세져 당무를 거부했던 김중민 비례대표는 급거 상경한 문재인 전 대표의 실적으로 마지못해 어제 오후 비례위에 참석했다. 하지만 양금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퇴설'까지 나온 상태에서 김 대표가 버티자 더민주는 지난 21일 밤 다시 소집된 중앙위에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애초 김 대표와 전문직들이 대거 상 위권이었던 것을 조정할 것이다. 김 대표에게는 본인을 포함한 4명의 전략공천과 순번 지정권을 부여하되, 당선 인정권 상위 10명씩 3개 집단의 간부로 실시하려던 방침을 철회해 2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일괄적 순위 결정으로 바꿨다.

그 결과 전문직 인사들이 대거 밀려났다. 반면 당선권 밖이던 김현곤 의성 한우협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이철호 전략기획본부장

과 이수혁 전 6차회담 수석 대표 등은 각 2,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순번 지정 등 전략공천권을 비례위에 일임하겠다고면서도 앞으로의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진노'(진노무한)계의 다목적 '견제구'로 보고 있다. 즉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 추종 세력과 함께 총선 이후 정국을 주도하려는 김 대표의 의도를 사전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대표 취임 이후 우클릭 편향의 당 '정책상'에 위기를 느끼고 충동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거를 코앞에 둔 마당에 공천을 둘러싼 이들의 진흥당 싸움은 불쌍사납다. 진노 패권 청산과 혁신으로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출 것을 기대했던 유권자의 바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해게모니 다름이 재발하면 전체적인 총선 판세가 악영향과 함께 당 존립 자체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 아닌가.

광양서 지카바이러스 첫 환자... 대응 철저히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첫 환자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최근 브라질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L(43)씨가 22일 오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양에 거주하는 L씨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브라질에서 22일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귀국한 뒤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지카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질본은 현재 L씨를 전남대병원 1인실로 격리하고 역학조사관을 광양으로 급파해 귀국 후 동선과 출장 동행자 정보, 자세한 증상을 알아보는 등 역학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질본 관계자는 "지카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 우려가 없는 만큼 격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첫 번째 발병이라서 일단 격리해 임상적인 관찰과 치료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은 더 이상 한국도 바이러스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처럼 해외여행이 빈번해지면서 언제든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법정 전염병이 외국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감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도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지난해 메르스로 엄청난 휴유증을 겪은 것도 사전·사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크다.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국민건강은 물론 소비 위축 등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지카 바이러스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은 의심환자 발생 시 지정병원에서 신속하게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할 봄·여름철은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기 쉬운 만큼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선출직의 꽃'이라는 국회의원이 되는 길은 두 가지다. 지역구에 출마해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방법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은 1963년 제6대 총선 때부터였다. 사표(死票)를 막고 직능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최근에는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다 보니 종 종 밀실 공천이나 낙하산 공천이란 오명을 쓰기도 했다. 공천 현금 30억~50억 원이면 당선 인정권, 수천만~5억 원이면 대기 순번을 받는다는 것이 18대 총선 수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공정한 선출을 통해 비례대표 배치를 위한 국회의원들은 왕성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는다. 19대에서 공개 오디션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김광진·은수미·장하나 의원은 청년 및 노동정책 등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 청년 스타 정치인이 됐다. 하지만 이들 스타 3인방 중 은수미 의원만 20대 총선에서 도전의 기

회를 얻었다.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목표에 출마했던 서기호 의원은 중도하차한 뒤 지역구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 박준규 전 국회의장과 함께 국내 최다선(9선) 기록을 가진 김종필(JP) 전 총리의 10선이 가로막힌 것도 비례대표제였다. JP는 2004년 자민련 비례대표 1번으로 10선에 도전했지만 자민련이 4석밖에 얻지 못해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 문제로 내용을 겪고 있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 대표가 비례대표 2번을 받으려하자 '셀프 공천' 논란이 인 것이다.

더민주의 비례대표 공천 논란 속에 평생 인권활동에 힘쓴 광주 출신 광경속 전 의원의 별세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척수장애인으로 딱 한 번 18대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면서도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온몸을 불사랐다. 국회의원이 죽시 광 의원 상가에 들른다면 그곳에서 비례대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